

‘혁신도시 시즌 2’ 사업 속도 낼까

정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와 혁신도시 시즌 2 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한다.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추진을 위해 정부, 광역자치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업이 기약없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방향성이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나 제시되는데, 관련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거치면 구체적인 대상기관 선정과 이전 시기 등을 연내 확정하는 것조차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총선 공약에 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도 흐릿해지는 모습이다.

오늘 정부-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업무협약 체결 법 개정·대상기관 선정 등 과제 산적...기약없이 늦춰질 우려

관 이전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난해 첫 언급 이후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을 뿐 그 메시지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 선거법 개정 등 민감한 이슈가 정리되고 새해가 밝으면 총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집값 하락 등

을 우려한 수도권 반발 여론에 밀려 민주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공약에 민주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담을 것인지 여부는 당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신규 혁신도시 지정, 예컨대 충청권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건설해달라는 목소리 등을 반영

하려면 관련법 개정, 그리고 법개정 보다 더욱 어려운 사회적 합의 등 절차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은 “제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 문제가 지금은 예산 심사, 선거법 개정 등 민감 이슈에 밀려있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당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기약없이 늦춰질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 총선 공약에 담겨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화전당 혼합현실 ‘검은 강, 검은 숲’ 10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에서 ACC 텔레프레젠텐스 혼합현실 프로젝트 ‘검은 강, 검은 숲 - 6Senses’가 개막했다. 미디어와 기술을 융합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나중에 위치한 ‘숨은 숲’ 내 7개의 늪지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장으로 생방송 송출하고, 전시 현장을 ‘숨은 숲’으로 재송출해 관람객들에게 복합실재공간을 경험하게 해 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국방부·광주시·전남도 만난다

13일 갈등관리협의체 회의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이자 최대 난제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고위 관계자들이 만난다. 국방부가 마련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설명자료를 지역주민에게 배부하고 홍보할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

인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 갈등관리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오는 13일 LH 광주전남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협의체는 통상 매월 회의를 열어왔지만, 국장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참석 회의는 7월 말 이후 처음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주민 공청회

등으로 가시화된 데다가 지난달 25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두 지역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한 뒤 이뤄지는 회의인 만큼 기대감이 쏠린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인만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군 공항을 전남으로 이른 시기에 이전하려는 광주시는 국방부 주관 설명회, 전남지사와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 설명 자료를 처음으로 마련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국방부 측에 국책사업인 만큼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감 있게 끌고 나아가달라고 재차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장 합의 추대 ‘논란’ 대한체육회 “임원 중립규정 저촉”

정치·체육 분리 취지 어긋나

대한체육회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시체육회 임원 등이 모여 합의추대를 거론한 것은 선거중립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는 10일 “광주시체육회 임원 등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선거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해당 체육회에 간부, 임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어 “누구든 후보자의 자의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체육회 선거규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를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체육회 임직원의 체육회장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광주시체육회 임원과 고문 등 10여명은 지난 2일 모처에 모여 회장 합의추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시체육회의 임·직원 간부, 부회장 3명 등 선거 규정상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인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기관단체, 출마 예상후보자 측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가칭 후보추대위원회 등을 꾸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후보추대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광주시장과 면담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인사는 “마치 회장으로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것처럼 합의추대 분위기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며 “민주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상식인데, 합의추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회의 참석자는 시 체육회 간부에게 ‘시장이 염두에 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냐, 이 자리에서 밝혀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고 치르는 선거인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시·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통과됨에 따라 체육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제도에 도입했다. 이 법은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시·도체육회장 맡아온 폐단을 없애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개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경두 국방장관 “北, 동창리 엔진 시험 우려”

한국, UN안보리북핵회의의 참석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개최하는 북한 비확산 공개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한국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서 뉴욕시간으로 11일 오후에 열리는 북한 비확산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현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한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도발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스콜존 가중처벌 ‘민식이법’ 통과	▶7면
황금빛 신비의 나라 미얀마	▶18면
KIA, ML 출시 투수 가능 영입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의 새로운 바람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로 미래로 준비하는 생명의 땅 으뜸전남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 Blue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
- Blue 투어**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
- Blue 바이오** 바이오-메디컬 허브, 전남
- Blue 트랜스포트**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전남
- Blue 농수산** 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전남
- Blue 시티**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란?
전남의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청정 자연과 수천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새천년을 이끌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전략입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